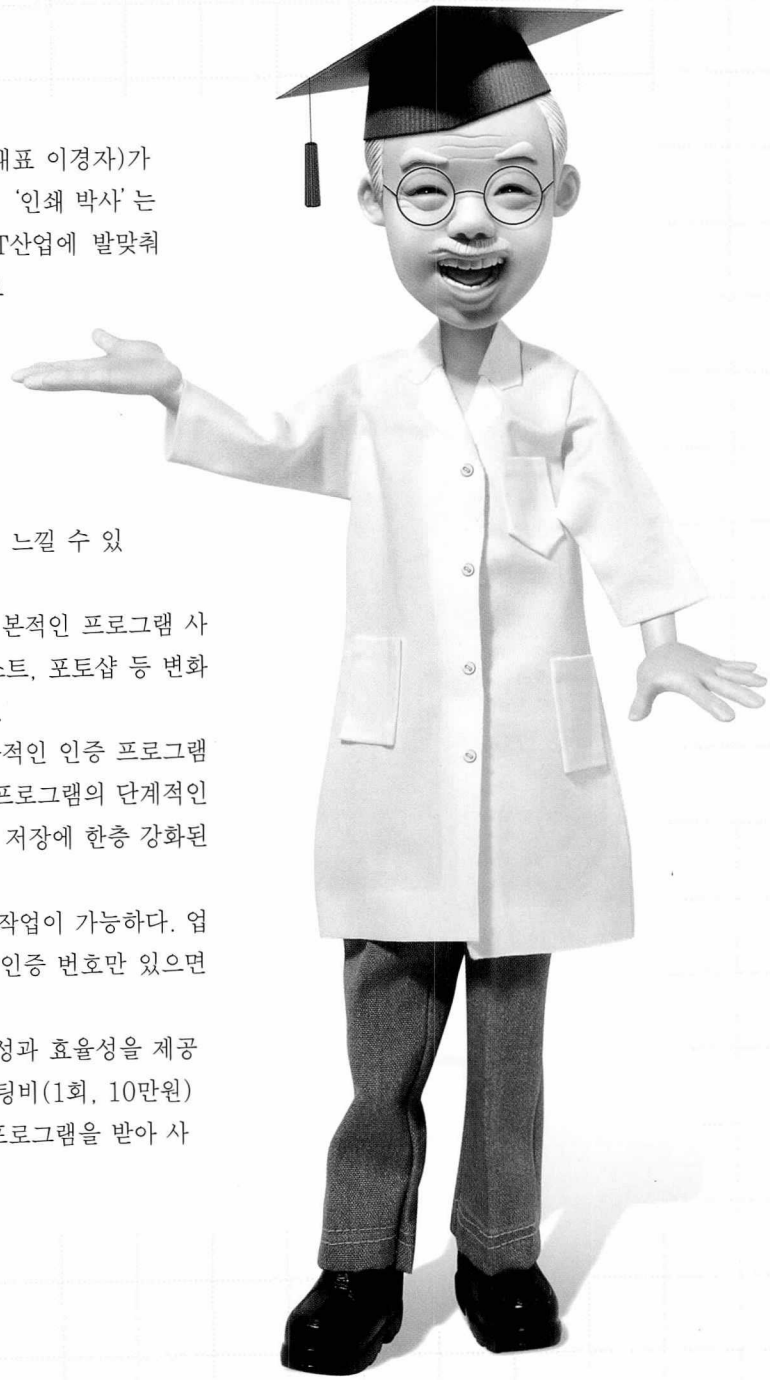
인쇄분야 맞춤형 S/W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전문 업체인 디오디네트(대표 이경자)가 최근 한층 더 강화된 '인쇄 박사 7.0' 버전을 출시했다. '인쇄 박사'는 1996년에 처음 모습을 보인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IT산업에 발맞춰 진화돼 온 인터넷 프로그램(ASP)이다.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해당 기업에게 맞는 체제로 변환시켜 효율성 제고에 그 바탕을 뒀다. 또 인쇄 관련 업종 실무자들이 편하게 검색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업계 용어를 통합, 지정해 곧바로 연결할 수 있는 통합형이다.

지금까지 실무자들이 광범위한 검색 조건을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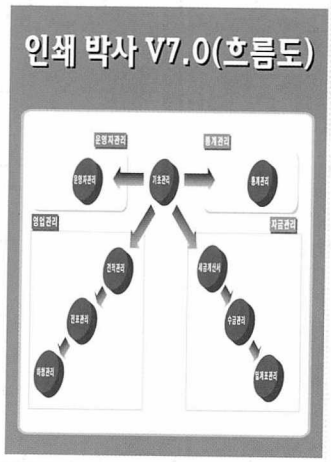
'인쇄 박사 7.0'은 또한 기존 시장에 보급돼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램 사양에 맞는 호환성과 함께 버전이 업그레이드 된 일러스트, 포토샵 등 변화된 작업 환경에서도 별무리 없는 작업 환경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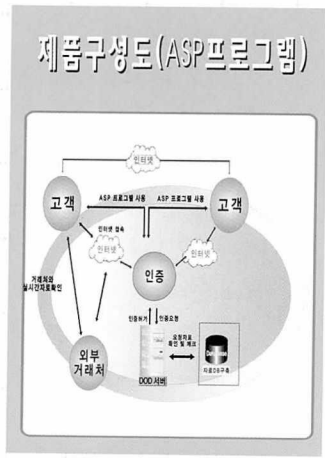
특히 정보화 시대의 핵으로 떠오른 보안 문제를 절차적인 인증 프로그램으로 해결했다. 즉 자동 백업 기능부터 절차상의 보완 프로그램의 단계적인 검증을 거쳐야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 프로그램 관리나 저장에 한층 강화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인쇄 박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든 작업이 가능하다. 업무 시간외에 자택이나 지방 출장 시에도 고유 주소와 인증 번호만 있으면 곧바로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접속이 가능하다.

따라서 보안이 필수적인 실무자들에게 더 없는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공한다. '인쇄 박사'는 또한 저가의 보급형이다. 초기 세팅비(1회, 10만원)에 월 5만원의 관리비용으로 디오디네트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인쇄 박사'





S/W 프로그램 개발업체에서 근무한 20여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쇄 박사' 개발에 주축을 이룬 이춘우 이사는 "인쇄 박사는 실무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증을 통해 철저한 보안이 이뤄지게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아울러 "꼭 필요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자인 캡슐 등을 주 거래처로 두고 있는 디오디네트는 이번 '2004 KIPES 전시회'의 출품을 시작으로 첨단 IT시대에 맞는 S/W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홍일 기자〉

잠깐 인터뷰 - 이경자 사장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최선"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감은 이론과 경험의 산물입니다." 이경자(47) 디오디네트 사장은 날렵한 전문가보다는 성실한 일꾼으로서의 겸손한 자세를 강조한다. 이 사장의 경력은 이채롭다. 20여년 이상을 일반 제조업에서 종사하다 인쇄업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에 뛰어든 지 4년. 생소한 분야를 개척하다 보니 기본적인 인쇄 용어뿐만 아니라 기계 분야에 대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하지만 이 사장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인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꾸준한 인연을 맺다보니 이 분야에 대한 가능성을 봤다"라며 "심혈을 기울인 만큼 우리 프로그램이 인쇄업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6~7년간 발이 부르트도록 시장 조사를 해 온 노하우가 경험으로 표출됐다고 말하는 이 사장. 향후 '인쇄 박사'가 한층 더 강화된 프로그램으로 진보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봐 달라는 포부를 내비쳤다.

프로세스 컬러로도 별색 쉽게 표현
현실감 살아나야 하는 이미지에도 사용

앞으로는 어렵고 복잡하지 않게 원하는 별색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크레오는 최근 프로세스 컬러로 별색을 표현할 수 있는, 즉 Spotless Printing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Spotless 4 & Spotless X를 개발, 보급에 나섰다.

Spotless 4는 CMYK 잉크를 써서 쉽고 정확하게 별색을 구현함으로써 4색 인쇄의 혜택을 최대한 끌어낸다. 별색을 만들어내기 위해 거쳐야만 했던 여러 가지 번거롭고 비효율적인 공정들을 거치지 않고, 작업자는 고객들이 더 많은 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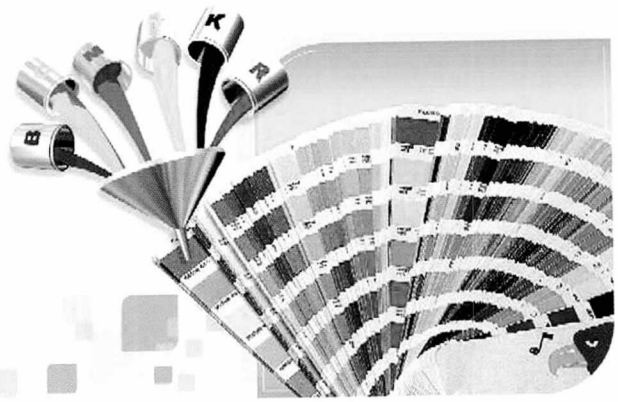
디자이너들 역시 의도했던 대로 정확한 컬러를 최종 결과물로 받아볼 수 있으며, 특별히 지정한 자기만의 별색을 파일로 보관할 수 있다. 또 Spotless 4는 원격교정으로 인쇄인과 바이어의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함으로써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돕는다.

Spotless X는 색조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CMYK 이외의 빨강, 오렌지, 녹색, 파랑 같은 프로세스 잉크를 추가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다시 말해서 CMYK + XYZ와 같이 제 5, 6 그 이상의 잉크 유닛을 쓸 수 있다. 라인 아트, 벡터 이미지 같은 전통적으로 별색이 주로 쓰여진 영역은 물론이고 사진같이 현실감이 살아나야 하는 이미지에 쓰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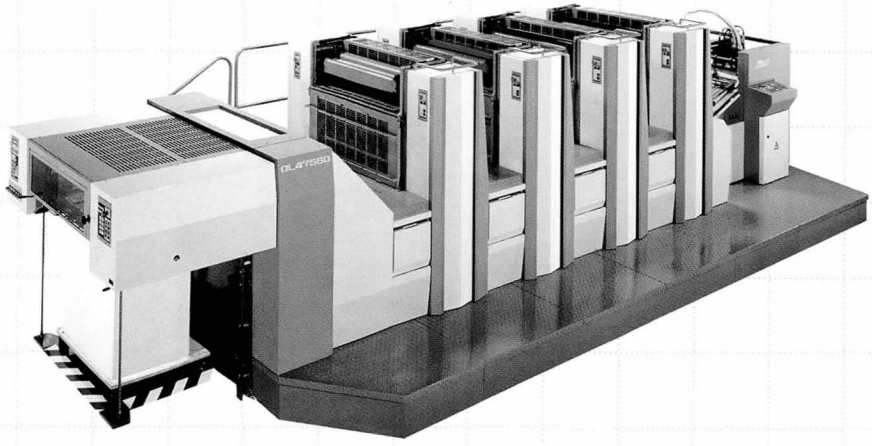
크레오 Spotless 기술은 종이, 잉크, 인쇄정보 등등의 인쇄 조건을 분석해서 컬러의 정확성을 높여준다. 하프톤 교정기나 크레오 교정시스템인 Integris, Veris와 같은 ICC 프로파일 교정기와 통합 운영된다. Spotless X 같은 경우 어느 특정한 잉크 세트에만 사용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고객의 필요에 맞는 잉크 세트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Spotless 4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크레오의 스퀘어스팟(SQUREspot) 서멀 이미징 기술이 탑재된 퀀텀 기종의 CTP 장비에 스타카토 스크리닝이 가능한 립 시스템을 갖추고 Spotless 4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면 가능하다. Spotless X는 Spotless X software, ICC 프로파일링 툴과 고객이 정한 제5색, 6색(혹은 그 이상)의 프로세스 컬러 잉크 세트가 있으면 된다.

〈문의 : 크레오 한국지사(02-2279-3415)〉



자동화 · 인력 절감가능한 표준 장비
얇은 종이에서도 위력 발휘



사쿠라이는 최근 각종 자동화 장비 및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장치가 표준 장비화 되어 있고 이를 통해 작업 환경의 편이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OLIVER-SD/SDP 시리즈를 선보였다.

간편한 조작성과 높은 수준의 인쇄 정밀도를 얻을 수 있는 사쿠라이 자동 인쇄판 교환 장치(SPC)는 인쇄판을 크램프에 끼워 넣고, 버튼 조작만으로 간단히 설치가 완료되며 커버가 자동으로 개폐된다. 더욱이 인쇄판을 굽히지 않고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재생 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쇄판의 팽창을 최대한 방지함으로써 PS판 뿐만 아니라 필름 인쇄판에도 최적이다.

사쿠라이 컬러 콘솔(SCC)에서는 대화형 액정 정보 시스템(SIS) 기능을 통해 인쇄 전 기계의 세팅부터 트러블 처리까지 모두 일원 관리가 가능하다. SIS의 화면상에서 용지 사이즈를 설정하는 종이 사이즈 프리셋 기능으로 ①배지부 조거(Jogger) ②배지부 휠 ③인압 ④옆가늠 장치 ⑤급지부 옆 가이드 ⑥피더 헤드 위치 등 용지 정보에 맞춰 자동으로 설정된다. 또한 급지판의 바퀴 세팅도 원터치로 간단히 설정된다.

그리고 인쇄 중 인쇄판의 가늠 조정은 물론 자동 코킹 시스템을 통해 고정밀, 고품질 인쇄가 가능하다. 더욱이 잉크 롤러 자동 세정 장치와 블랭킷 자동 세정 장치를 표준으로 장비, 버튼 조작만으로 자동으로 세정되며 각각 더러운 정도에 따라 세정 패턴을 구분하여 설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양면인쇄기 OLIVER-SDP 시리즈는 전자동 반전 전환 장치를 탑재, 편면인쇄에서 양면인쇄로, 양면인쇄에서 편면인쇄로, 종이 상하 길이를 포함해 모두가 컴퓨터 제어에 의해 전자동으로 전환된다. 또한 사쿠라이만의 독창적인 기술인 종이 끝 흡입 기구는 얇은 종이에서도 위력을 발휘하며 정확한 가늠 정밀도를 얻을 수 있다.

잉크 건조 시간 단축, 인쇄물 광택을 통한 부가 가치 상승, 파우더 사용 감소 등의 바람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쿠라이 OLIVER-SD/SDP 시리즈는 IR/UV 건조장치의 코팅 시스템도 추가 장비로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사쿠라이 OLIVER SD/SDP 시리즈는 네트워크에도 대응한다. 사쿠라이 CIP3는 CTP/DTP에서 공급된 컬러 데이터(PPF필름)를 잉크키 세팅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다. 이 기능으로 작업자의 잉크키 색 맞춤 작업을 경감시킬 수 있다. CIP3/PPF 출력 가능한 립이 필요하다. 더욱이 TIFF 필름 형식의 컬러 데이터로 잉크키 세팅을 가능하게 하는 사쿠라이 TIFF 컨버터도 갖추고 있다.

〈문의 : 원창인쇄기계(02-2068-4100)〉